



은행주 Outperform 현상 이어질 전망

은행 Weekly | 2026.6.8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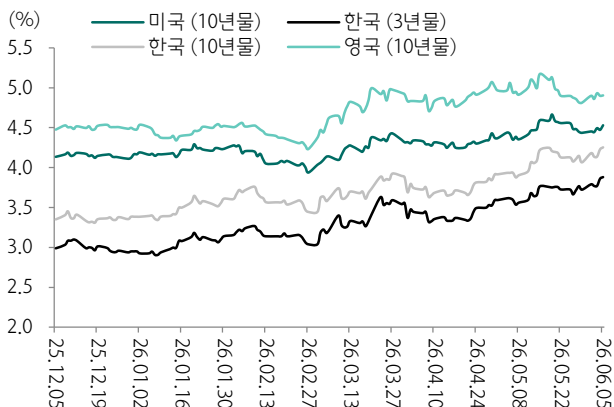
- 금감원이 홍콩 ELS 불안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과징금을 기존 1.4조원보다 절반으로 줄여진 6,000억원대로 감경. 지난달 금융위가 기존 제재안을 반려한 뒤 내리친 결정으로 위반 동기과 방법에 대한 평가가 각각 '하'로 조정되면서 부과기준율이 인하
- 신한지주가 KB금융과 토스, 지방은행 등과 원화스테이블코인 사업 논의에 착수. 특히 하나금융과 손잡은 네이버가 우버와 함께 배달의 민족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땀겨요를 운영 중인 신한도 업계 합종연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황
- 은행권의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가 이달 공개 예정. 연체채권 소각이나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새희망홀씨, 정책서민금융 등 저신용-저소득 차주 대상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공급 규모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
- 금융위가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에 대한 자본산출 방식 개편에 착수. 증권업의 특성에 맞춰 RWA 산출 방식을 정교하게 다듬어 자본규제의 합리성을 높여 은행지주사의 자금이 벤처 등 혁신기업으로 흘러가도록 생산적금융의 물꼬를 트겠다는 취지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6월 5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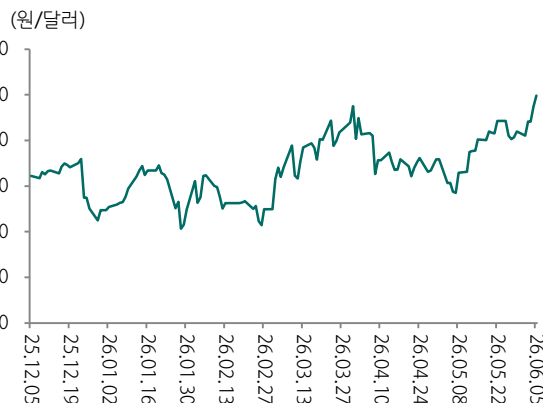
| | PBR (2026F) | PER (2026F) | ROE (2026F) | ROA (2026F) | Mkt. Cap. (bil.) | Performance (%) | | | | Weekly Net Buy (십억원) | | | |
|--------|----------------|----------------|----------------|----------------|---------------------|-----------------|-------|-------|-------|----------------------|-------|-----------|----------|
| | | | | | | 1W | 1M | 3M | YTD | 국내기관 | (연기금) | 외국인 | 개인 |
| KOSPI | 1.96 | 8.9 | 22.0 | | 6,685,559.1 | -3.7 | 10.5 | 46.1 | 93.6 | 956.4 | -65.7 | -22,456.0 | 21,409.2 |
| 은행 | 0.70 | 8.3 | 8.8 | 0.63 | 212,326.6 | 10.3 | 3.4 | 8.3 | 27.1 | 42.7 | 40.4 | 252.6 | -287.6 |
| KB 금융 | 0.96 | 10.0 | 9.9 | 0.76 | 63,981.1 | 13.9 | 8.0 | 16.4 | 37.6 | 3.6 | 15.6 | 101.9 | -104.6 |
| 신한지주 | 0.82 | 10.2 | 9.1 | 0.65 | 51,025.3 | 14.9 | 10.5 | 17.1 | 39.8 | 43.6 | 25.4 | 64.5 | -107.8 |
| 우리금융 | 0.56 | 7.2 | 8.2 | 0.52 | 22,903.2 | 5.1 | -4.3 | -5.6 | 11.4 | -2.6 | 4.7 | 22.3 | -17.8 |
| 하나금융 | 0.68 | 7.8 | 9.2 | 0.63 | 33,911.9 | 7.4 | -1.5 | 12.1 | 31.3 | 21.0 | 9.6 | 18.8 | -38.7 |
| 기업은행 | 0.44 | 5.9 | 7.6 | 0.55 | 16,466.8 | 2.2 | -4.4 | -12.7 | -1.4 | -25.6 | -15.2 | 35.6 | -7.2 |
| BNK 금융 | 0.46 | 6.2 | 7.7 | 0.53 | 5,350.0 | 2.5 | -4.9 | -6.4 | 8.6 | 7.7 | -1.3 | -0.7 | -6.8 |
| iM 금융 | 0.43 | 5.8 | 7.6 | 0.47 | 2,843.1 | 2.1 | -6.7 | 3.8 | 13.8 | -5.1 | 1.5 | 7.9 | -2.5 |
| JB 금융 | 0.74 | 6.5 | 11.9 | 1.00 | 4,847.5 | 7.7 | -3.0 | -12.4 | 0.4 | 0.0 | 0.1 | 2.4 | -2.2 |
| 카카오뱅크 | 1.54 | 19.1 | 8.3 | 0.72 | 10,997.6 | 2.9 | -7.8 | -4.4 | 6.7 | 5.0 | 3.5 | 11.8 | -17.0 |
| 삼성카드 | 0.58 | 8.3 | 7.2 | 1.97 | 5,329.5 | -0.3 | -10.9 | -22.4 | -17.7 | -7.3 | -1.5 | 4.8 | 2.5 |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10.3% 상승해 KOSPI 하락률 3.7% 대비 대폭 초과상승해 전전주의 초과하락 폭을 대부분 만회. 지난주 은행주 상승의 배경은 1) 미국 5월 비농업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면서 금리 모멘텀에 기름을 부었고, 2) 금융위가 금감원으로 반려한 홍콩 ELS 과징금이 6천억원대로 감경되었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 3) 여기에 반도체 조정에 따른 KOSPI내 수급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외국인들이 확연한 은행주 매수세로 돌아선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4) 금융당국이 생산적금융 확대 연장선으로 자본규제 TF를 열고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들에 적용되는 RWA 등 자본산출 방식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 은행계 증권사들은 PEF LP 뭉까지 RWA에 포함되고, 투자자예탁금도 RWA 산출 대상에 포함되어 전업계 증권사와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된 바 있음. 전주 미국 국채금리는 큰폭 상승 전환. 5월 미국 비농업고용이 17.2만명 증가해 시장 전망치인 8만명 수준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53%로 한주간 9bp 상승했으며, 2년물 국채금리는 4.15%로 15bp 상승. 국내 국채금리도 큰폭 상승세. 3년물은 3.88%로 한주간 15bp 상승했으며, 10년물 국채금리는 4.25%로 한주간 18bp 급등. 한편 원/달러 환율은 한주간 40원 넘게 상승해 1,550원선마저 뚫고 올라가면서 1,559.0원으로 마감. 지난주 외국인은 KOSPI를 4일동안 22.5조원이나 순매도했으며 반면 은행주는 2,530억원을 순매수. 국내 기관은 KOSPI를 9,600억원 순매수했고, 은행주도 430억원 순매수
- 전주 특징주는 신한지주와 KB금융. 금리 모멘텀에 이어 홍콩 ELS 과징금 경감 등의 소식과 더불어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 자본규제 완화 기대감 등이 발생하며 주가가 한주간 각각 14.9%와 13.9% 상승해 가장 큰폭 상승. 특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대형은행지주사인 양사에 집중된 점도 주가가 큰폭 상승한 배경. 반면 홍콩 ELS 과징금 이슈에서 벗어나 있었고, 그룹내 증권 이익 기여도가 적은 우리금융과 중소형 은행지주사들은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 폭이 미미했음
- 언론에 따르면 금감원은 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콩 ELS 과징금을 기존 1.4조원에서 6,000억원대로 낮춘 것으로 알려짐. 금융위는 7월초 제재를 마무리할 방침. 은행별 과징금은 금주에 은행에 통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알기 어려움. 향후 관심사항은 금융위에서의 추가 감경 여부일텐데 금융위 감경 권한이 더 폭넓은 점을 감안하면 소폭이라도 추가 감경 여지가 있다고 판단. 우리는 ELS 과징금이 최종적으로 5,000억원 수준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 경우 KB금융 2,500억원 내외, 신한지주 750억원 내외, 하나금융 650억원 내외 전망. 기존에 은행들이 손실로 인식한 ELS 과징금이 KB금융 3,609억원, 신한지주 1,527억원, 하나금융 1,263억원이므로 우리의 가정대로라면 KB금융은 약 1,000억원 내외, 신한지주와 하나금융도 500억원 이상씩 환입 예상. 7월초에 제재가 확정된다면 이를 2분기 손익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는 2분기 실적을 상향시키는 일회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 따라서 실적이 컨센서스를 추가 상회할 가능성 높아짐
- 원/달러 환율이 1,560원선에 근접하면서 자본비를 하락 요인으로 작용 예상. 은행주는 현재 환율 말고는 네거티브 요인이 크게 없는 상황임. 현 환율이 1분기말 대비 약 40원 이상 오른 상태이므로 6월말까지 현재 환율이 유지된다면 대형 은행지주사들의 경우 약 10bp 내외의 CET 1 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물론 외화NIM과 손익에도 소폭의 부정적인 영향 불가피. 다만 손실사건 운영리스크 RWA 산출 제외, 해외장기투자/해외점포이익잉여금 RWA 제외 영향 등으로 2분기 중 약 25bp 내외의 CET 1 비율 상승 요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상승 폭이 축소될 뿐이지 2분기 CET 1 비율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 물론 향후에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 추가 상승시에는 관련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KB금융과 신한지주가 장중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 직전 고점이었던 2월 대비 비은행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확연히 확인되었고, 금리 모멘텀도 더 뚜렷해졌다는 점에서 전고점을 상회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 지난주 상승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만 은행주가 여전히 KOSPI를 50%p 넘게 초과하락하고 있어 상대적인 가격 부담 또한 전혀 없는 상황. 다만 최근 KB금융과 신한지주의 상승 폭이 상당했고, 환율 우려도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금주는 환율 영향이 적은 못 올랐던 중소형종목들이 Gap 메우기 성격의 반등세를 시현할 공산이 크다고 판단. 아무튼 시장 분위기 변화 조짐이 발생하면서 당분간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outperform 현상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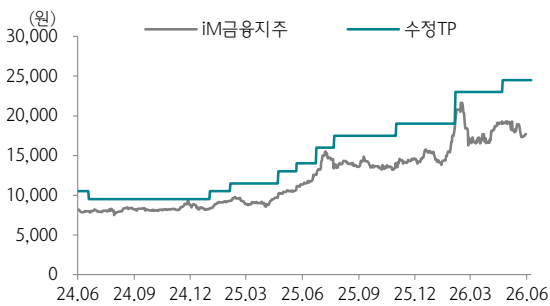
IM금융(매수/TP 24,500원), BNK금융(매수/TP 24,500원)

- 금리 상승시의 건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중소형은행들이 금리모멘텀에서 다소 소외 중. 다만 우려가 다소 과한 측면이 있고 중소형은행들은 환율 영향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고려해야. 대형은행지주사 대비 상승 폭이 미미했기 때문에 후행적 반등 기대
- IM금융과 BNK금융도 2분기에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시현 전망. 양사 PBR 0.5배 미만으로 가격 매력 충분히 부각 가능

| Global Peer Table | | | | | | (2026년 6월 5일 종가 기준) | | | |
|---------------------------|----------------|----------------|----------------|----------------|---------------------|---------------------|-------|-------|-------|
| | PBR (2026F) | PER (2026F) | ROE (2026F) | ROA (2026F) | Mkt. Cap. (bil.) | Performance (%) | | | |
| | | | | | | 1W | 1M | 3M | YTD |
| KOSPI | 1.96 | 8.9 | 22.0 | | 6,685,559.1 | -3.7 | 10.5 | 46.1 | 93.6 |
| 은행 | 0.70 | 8.3 | 8.8 | 0.63 | 212,326.6 | 10.3 | 3.4 | 8.3 | 27.1 |
| KB금융 | 0.96 | 10.0 | 9.9 | 0.76 | 63,981.1 | 13.9 | 8.0 | 16.4 | 37.6 |
| 신한지주 | 0.82 | 10.2 | 9.1 | 0.65 | 51,025.3 | 14.9 | 10.5 | 17.1 | 39.8 |
| 우리금융 | 0.56 | 7.2 | 8.2 | 0.52 | 22,903.2 | 5.1 | -4.3 | -5.6 | 11.4 |
| 하나금융 | 0.68 | 7.8 | 9.2 | 0.63 | 33,911.9 | 7.4 | -1.5 | 12.1 | 31.3 |
| 기업은행 | 0.44 | 5.9 | 7.6 | 0.55 | 16,466.8 | 2.2 | -4.4 | -12.7 | -1.4 |
| BNK금융 | 0.46 | 6.2 | 7.7 | 0.53 | 5,350.0 | 2.5 | -4.9 | -6.4 | 8.6 |
| iM금융 | 0.43 | 5.8 | 7.6 | 0.47 | 2,843.1 | 2.1 | -6.7 | 3.8 | 13.8 |
| JB금융 | 0.74 | 6.5 | 11.9 | 1.00 | 4,847.5 | 7.7 | -3.0 | -12.4 | 0.4 |
| 카카오뱅크 | 1.54 | 19.1 | 8.3 | 0.72 | 10,997.6 | 2.9 | -7.8 | -4.4 | 6.7 |
| 삼성카드 | 0.58 | 8.3 | 7.2 | 1.97 | 5,329.5 | -0.3 | -10.9 | -22.4 | -17.7 |
| 미국 | | | | | | | | | |
| S&P 500 | 5.00 | 21.8 | 21.6 | 5.63 | 65,770.8 | -2.5 | 1.9 | 8.4 | 7.9 |
| 은행 | 1.58 | 12.6 | 12.5 | 1.08 | 2,123.7 | 4.3 | 1.8 | 7.6 | -1.0 |
| Wells Fargo | 1.46 | 12.6 | 12.8 | 0.99 | 250.8 | 5.7 | 3.2 | 0.4 | -12.1 |
| JPM | 2.32 | 14.0 | 17.1 | 1.27 | 837.0 | 4.4 | 1.0 | 7.0 | -3.1 |
| CITI | 1.12 | 12.3 | 9.7 | 0.71 | 225.9 | 5.2 | 3.5 | 22.2 | 13.5 |
| BOA | 1.34 | 12.1 | 11.7 | 0.96 | 382.0 | 4.9 | 1.9 | 9.3 | -2.1 |
| US Bancorp | 1.39 | 10.9 | 13.1 | 1.17 | 86.8 | 1.5 | 0.2 | 4.3 | 4.4 |
| PNC | 1.51 | 12.2 | 12.7 | 1.26 | 91.7 | 3.3 | 3.0 | 8.4 | 9.4 |
| BB&T | 0.99 | 10.9 | 9.4 | 1.04 | 61.3 | 2.1 | -0.5 | 2.6 | 0.0 |
| 중국 | | | | | | | | | |
| 상해A주지수 | 1.41 | 14.2 | 10.0 | 1.41 | 64,135.3 | -0.9 | -1.7 | -1.6 | 1.5 |
| 은행 | 0.66 | 7.2 | 9.4 | 0.68 | 11,926.9 | 1.7 | -0.4 | 4.5 | -6.8 |
| 공상은행 | 0.63 | 7.1 | 9.1 | 0.68 | 2,492.6 | 1.7 | 0.8 | 5.6 | -7.4 |
| 건설은행 | 0.71 | 7.7 | 9.6 | 0.72 | 2,033.0 | 2.6 | 2.7 | 14.3 | 10.1 |
| 농업은행 | 0.76 | 7.8 | 9.8 | 0.59 | 2,185.7 | 0.6 | -6.3 | -3.8 | -17.2 |
| 중국은행 | 0.68 | 8.1 | 8.5 | 0.64 | 1,828.2 | 3.2 | 5.2 | 12.2 | 5.6 |
| 교통은행 | 0.50 | 6.4 | 7.8 | 0.62 | 589.8 | 2.6 | 0.4 | 1.6 | -5.8 |
| 초상은행 | 0.81 | 6.5 | 12.9 | 1.13 | 987.5 | 1.5 | 0.8 | -1.5 | -8.4 |
| 일본 | | | | | | | | | |
| NIKKEI | 2.93 | 23.7 | 12.2 | 4.26 | 1,034,503.2 | 0.4 | 11.9 | 21.3 | 32.3 |
| 은행 | 1.48 | 14.7 | 10.0 | 0.47 | 130,317.6 | 5.7 | 12.3 | 16.7 | 29.6 |
| Mitsubishi UHF | 1.71 | 16.2 | 10.8 | 0.61 | 38,202.2 | 7.3 | 15.0 | 20.0 | 29.1 |
| Sumitomo Mitsui Financial | 1.53 | 15.0 | 10.8 | 0.61 | 23,845.3 | 7.1 | 12.4 | 17.3 | 23.6 |
| Mizuho | 1.71 | 15.8 | 11.4 | 0.43 | 18,848.9 | 7.2 | 15.1 | 19.9 | 35.4 |
| Sumitomo Mitsui Trust | 1.22 | 13.5 | 9.3 | 0.37 | 4,072.7 | 6.5 | 9.4 | 15.1 | 22.0 |
| 유럽 | | | | | | | | | |
| MSCI Europe | 2.32 | 15.6 | 14.4 | 1.75 | 15,034.2 | -0.4 | 3.1 | 5.0 | 5.2 |
| 은행 | 1.39 | 10.5 | 13.4 | 0.74 | 1,932.0 | -1.5 | 6.0 | 11.2 | 4.9 |
| HSBC | 1.67 | 11.0 | 15.4 | 0.84 | 233.8 | -2.4 | 6.9 | 10.0 | 15.9 |
| Santander | 1.47 | 10.5 | 13.7 | 0.77 | 156.8 | -0.5 | 4.9 | 11.4 | 6.0 |
| BNP Paribas | 0.85 | 8.0 | 10.8 | 0.45 | 103.2 | 0.8 | 8.6 | 10.7 | 15.9 |
| Credit Agricole | 0.68 | 7.4 | 9.6 | 0.28 | 50.0 | -0.4 | 6.1 | 3.9 | -5.8 |
| Deutsche | 0.77 | 8.3 | 9.7 | 0.47 | 52.3 | -1.4 | 8.0 | 1.4 | -17.3 |
| Unicredit | 1.62 | 9.9 | 17.0 | 1.26 | 110.3 | -1.5 | 7.9 | 12.1 | 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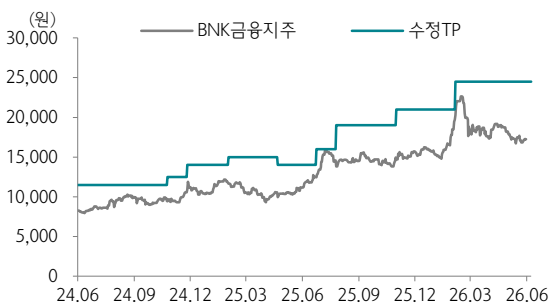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iM금융



| 날짜 | 투자의견 | 목표주가 | 괴리율 | |
|---------|------|--------|---------|---------|
| | | | 평균 | 최고/최저 |
| 26.4.29 | BUY | 24,500 | | |
| 26.2.11 | BUY | 23,000 | -21.75% | -5.87% |
| 25.11.7 | BUY | 19,000 | -21.91% | -2.58% |
| 25.7.29 | BUY | 17,500 | -20.98% | -15.09% |
| 25.6.30 | BUY | 16,000 | -10.24% | -3.06% |
| 25.5.29 | BUY | 14,000 | -16.30% | -10.14% |
| 25.4.29 | BUY | 13,000 | -19.30% | -17.77% |
| 25.2.10 | BUY | 11,500 | -19.99% | -15.04% |
| 25.1.8 | BUY | 10,500 | -14.72% | -11.62% |
| 24.6.25 | BUY | 9,500 | -13.31% | -1.79% |

BNK금융



| 날짜 | 투자의견 | 목표주가 | 괴리율 | |
|----------|------|--------|---------|---------|
| | | | 평균 | 최고/최저 |
| 26.2.11 | BUY | 24,500 | | |
| 25.11.7 | BUY | 21,000 | -24.78% | -6.19% |
| 25.8.1 | BUY | 19,000 | -23.37% | -17.89% |
| 25.6.30 | BUY | 16,000 | -7.88% | -0.31% |
| 25.4.28 | BUY | 14,000 | -20.70% | -9.21% |
| 25.2.7 | BUY | 15,000 | -28.96% | -21.27% |
| 24.12.2 | BUY | 14,000 | -20.72% | -13.14% |
| 24.10.31 | BUY | 12,500 | -22.39% | -15.52% |
| 24.5.2 | BUY | 11,500 | -21.47% | -10.52%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6월 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6월 8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 투자등급 | BUY(매수) | Neutral(중립) | Reduce(매도) | 합계 |
|------------|---------|-------------|------------|------|
|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 97.27% | 2.73% | 0.00% | 100% |

* 기준일: 2026년 6월 5일